

고려시대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곽 승 훈*

【국문초록】

고려 전기 金陟明이 지은 「圓光法師傳」에 따르면, 운문사는 원광법사가 자신을 위해 절을 짓고 복을 빌어달라는 海龍의 부탁으로 창건되었다. 또한 절 이름을 운문사라 하였다. 仁宗代 國師를 지낸 學一은 雲門寺로 下山하여 머무른다. 그는 天台宗으로 귀의하라는 義天의 권유를 끝내 거부하고 禪宗 승려로서의 절개를 지킨다. 얼마 뒤 1161년 淸道郡 戶長들이 편찬한 『郡中古籍補記』에 따르면, 운문사는 鵲岬에 절을 지으면 護法賢君이 나와 후삼국을 통일할 것이라는 海龍의 권유를 받아들여 寶壤禪師가 창건하였다. 그리고 절 이름을 鵲岬寺라 하였는데, 운문사는 고려 太祖가 賜額한 이름이다. 이는 운문사의 창건자가 교종 승려인 원광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선종 승려인 보양선사로 바꾼 것이다.

1277년 운문사 住持로 부임한 一然은 운문사 관련 사적을 열람하고, 김척명의 저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다. 일연에 따르면, 그의 저술은 『고본수이전』 원광전을 바탕으로 지었는데, 여기에는 원광이 운문사를 창건한 이야기가 없다. 또 고려 초 청도군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의하면, 보양선사가 운문사 주지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척명의 저술은 역사

* 목원대학교

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연은 그것을 考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각훈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일연이 선종 승려라는 입장도 반영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운문사의 창건자와 創建 緣起가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불교사의 흐름은 물론 종파간의 경쟁에서 나온 듯하다

【주제어】

雲門寺, 圓光, 寶壤禪師, 學一, 金陟明, 『殊異傳』, 『郡中古籍裨補記』, 『海東高僧傳』, 『三國遺事』

목 차

I. 머리말	IV. 『군중고적비보기』의 보양전 내용
II. 일연의 비판과 『수이전』 改撰	과 찬술 의도
III. 김척명의 원광·비허전 내용과 찬술의도	V.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VI.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雲門寺의 창건연기는 『海東高僧傳』과 『三國遺事』에서 살필 수 있는데, 이 역시 지금은 전하지 않는 다음의 두 책에서 인용된 것이다. 먼저 고려 전기 金陟明이 지은 『圓光法師傳』에 따르면, 원광법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도중, 海龍이 자신을 위해 절을 짓고 福을 빌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때 문이었다. 또한 절 이름을 雲門寺라 하였다.¹⁾ 이에 반해 1161년 청도군에서 편찬한 『郡中古籍裨補記』에 실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에 따르면, 寶壤禪師가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도중, 鵝岬에 절을 지으면 護法賢君이 나와 혼란을 잠재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될 것이라는 海龍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절 이름은 본래 鵝岬寺로서, 운문사는 뒤에 고려 太祖가 賜額한 것으로 밝혀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00년대에 들어와, 김척명의 저술 내용은 『해동고승전』 圓光傳에 그대로 반영되어 원광법사가 운문사의 창건자임을 再闡明한다. 또한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은 『삼국유사』 寶壤梨木조에 인용돼 보양선사가 운문사의 창건자임을 역시 재천명한다. 이 사실은 一然이 1277년 운문사 주지로 부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일연은 운문사와 관련된 사적을 열람하고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삼국유사』에 담아 놓았다. 그에 따르면, 『해동고승전』 원광전 내용은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내용을 답습한 것이고, 김척명은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에 보양선사의 사적을 가져다 운문사의 창건연기를 지어낸 것이었다. 결국 선사인 일연으로서는 가만히 놓아 둘 수 없었고, 淸道郡의 공문서 등을 인용 고증하여 운문사의 창건자가 보양선사임을 다시 천명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김척명과 각훈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이렇듯 고려시대 운문사의 창건연기는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면서 저술되고 또 계승되었다. 어떤 연유가 있었을 법한데, 學一의 활동이 주목된다. 仁宗代 國師를 지낸 학일은 雲門寺로 下山하여 1129년부터 1144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그런데 그의 비문에 天台宗으로 귀의하라는 大覺國師 義天의 권유를 끝내 거부하고 禪宗 승려로서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²⁾ 이런 때문인지 얼마 뒤 寶壤禪師를 운문사의 창건자로 내세운 『군중고적비보기』가 지어지고 있다. 이는 운문사의 창건자가 교종 승려인 원광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선종 승려인 보양선사로 바꾼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운문사의 창건자와 創建 緣起가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불교사의 흐름은 물론 중

1) 이는 일연이 밝혀 놓았다(『三國遺事』 卷4, 義解 5, 寶壤梨木조). 뒤의 A② 참조.

2)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문」. 뒤의 주 33) 참조.

파간의 경쟁에서 나온 듯하다.³⁾ 이 글은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연의 비판 내용을 살펴, 『해동고승전』 원광전 내용으로부터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체재를 추출하고 『殊異傳』 改撰 문제를 알아본다. 다음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을 『고본수이전』 원광전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럼으로서 그가 『고본수이전』을 고쳐지은 의도를 알아낸다. 이어 『군중고적비보기』의 보양전을 김척명의 「원광법사전」과 대조하여, 저자와 그 의도를 알아본다. 나아가 서로 다른 두 계통의 운문사 창건연기를 운문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핀다. 그 결과 그것이 고려 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피어 글을 맺고자 한다.

II. 일연의 비판과 『수이전』 改撰

고려시대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지으면서,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을 참고한 사실은 다음 일연의 기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 A-① 위의 당전과 향전에 나오는 두 전기에 따르면 다만 성씨가 박과 설이 되고 출가가 동과 서로 되어 마치 두 사람과 같으므로, 감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어 두 전기를 다 적어둔다.
 ② 그러나 여러 전기에 모두 작갑 이목과 운문의 사실은 없는데, 향인 김척

3) 고려시대 운문사 관련 연구로 다음 글 참조. 金潤坤, 1982, 「麗代의 寺院田과 그 耕作農民-雲門寺와 通度寺를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2·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김운곤, 1983,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清道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1, 같은 책: 金光植, 1989, 「雲門寺와 金沙彌亂: 高麗中期 寺院勢力의 一例」, 『한국학보』 54, 일지사; 2001, 『고려 무인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裴象鉉, 1997, 「高麗時代 雲門寺의 寺院田 經營」,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학회; 1998, 『고려후기사원전연구』, 국학자료원.

명이 그릇되이 향간의 설로 글을 운문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으면서, 운문사의 개조 보양스님의 사적을 잘못 기록하여 원광스님의 사적과 혼합해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었다.

- ③ 후에 『해동고승전』을 엮은 이도 그릇됨을 이어받아 기록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사람이 그것에 많이 미혹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자 하여 한 자도 가감하지 않고 두 전기의 글을 자세히 적어 둔다(『三國遺事』 卷4, 義解 5, 圓光西學).⁴⁾

A-①에서 '당전'은 『속고승전』에 실린 원광법사전이며, '향전'은 일연이 동경의 안일호장 정효의 집에서 보았다는 『고본수이전』을 말한다.⁵⁾ 이어 A②를 통하여 이 두 전기에는 작갑 이목과 운문의 事實이 없지만,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에는 그 내용들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우선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의 존재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연은 김척명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향간의 설[街巷之說]'을 추가한 내용 즉 작갑 이목 운문 등의 사실이 원광법사가 아닌 보양선사의 사적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A③은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 역사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해동고승전』 원광전

4) ① 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薛 出家之東西 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 ② 然彼諸傳記 皆無鷓岬璃目與雲門之事 而鄉人金陟明 謬以街巷之說 潤文作光師傳 濫記雲門開山祖寶壤師之事迹 合爲一傳 ③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因辨於此 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 이하 『삼국유사』에 대한 해석은 이재호의 것을 따랐는데(이재호 역주, 1997, 『삼국유사』, 서울출판사),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고쳐서 반영하였다.

5) 일연은 『삼국유사』 원광서학조를 찬술하면서, 다음처럼 典據를 먼저 밝히고 이어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

唐續高僧傳第十三卷載 新羅皇隆寺釋圓光 … 又東京安逸戶長貞孝家在 古本殊異傳載圓光法師傳曰 … 又三國史·列傳云 賢士貴山者沙梁部人也 … 又建福三十年癸酉(即眞平王卽位三十五年也)秋 隋使王世儀至 於皇龍寺設百座道場 請諸高德說經 光最居上首(『三國遺事』 卷4, 義解 5, 圓光西學).

즉 원광서학조에는 唐의 道宣이 찬술한 『속고승전』 원광전과 동경 안일호장 정효의 집에 전해진 『고본수이전』 원광전, 그리고 『삼국사기』 卷45, 귀산전과 신라본기 5, 진평왕 30년 기사 등이 인용되었다. 이로서 원광서학조의 찬술은 전거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을 알겠다.

에 재인용한 각훈 역시 잘못임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이 改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연은 당전과 향전 두 가지 모두를 가감하지 않고 적어 둔다고 밝혀 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 내용은 『해동고승전』 원광전의 고찰을 통해 살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본수이전』의 내용 외에, 김척명이 추가한 작갑 이목 운문의 사실이 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연이 말했듯이 『고본수이전』 원광전에는 작갑 이목과 운문의 사실이 없다 (A-②). 그것은 보양선사의 사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연은 보양의 사적을 별도로 보양이목의 편목을 설정 수록하여 놓았다.⁶⁾ 그리고 그 끝부분에 거듭하여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이 잘못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B-① 뒷사람이 『신라(수)이전』을 고쳐 지으면서 작갑과 이목의 사실을 원광의 전기 속에 잘못 기록하고, ② 견성의 사실을 비허의 전기에 넣은 것이 벌써 잘못인데, ③ 또 『해동고승전』을 지은 이도 이에 따라 글을 윤색했으므로 보양스님에게는 전기가 없게 되어 후인에게 의심내고 그르치게 했으니 이 얼마나 誣妄한 짓일까?(『三國遺事』卷4, 義解 5, 寶壤梨木).⁷⁾

먼저 B-①은 A-②에서 말한 문제점을 반복한 것으로, 작갑사(운문사의 전신) 창건과 海龍의 아들 離目이 비를 내린 사실 두 가지를 말한다. 다음 B-②에서 犬城의 事實을 비허의 전기에 넣었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견성의 사실은 위의 寶壤梨木조에 들어있는데, 태조가 청도의 犬城을 공략할 때 寶壤禪師가 지혜로 도운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 때의 공적으로 운문사는 비보사찰이 되고 작갑사에서 운문사로 賜額이 내려진다. 따라서 견성의 사실은 보양선

6) 이에 대해서는 주 19) 참조.

7) ① 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鵲塔·璃目之事于圓光傳中 ② 系犬城事於毗盧傳 既謬矣 ③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 誣妄幾何.

사의 전기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이 毗盧師의 전기에 들어있으므로 또 다른 잘못이 된다. 이처럼 보양과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이 김척명이 지은 원광과 비허의 전기에 잘못 들어 있음을 일연은 지적하였다. 이어 B-③에서는 그 잘못을 『해동고승전』의 저자 각훈 또한 계승하여, 후인들을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역시 잘못임을 다시 강조하여 부각시켰다.

이같이 살펴오면 우리는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에는 『고본수이전』 원광전에 실렸던 기존 내용에 더하여 운문 작감 이목의 사실이 들어 있게 되고, 견성의 사실은 또다른 인물인 毗盧의 전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연 알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동고승전』 원광전의 분석을 통하여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과 「비허전」을 살필 수 있다.⁸⁾

그런데 다시 B-①을 살펴보면, “뒷사람이 ‘신라(수)이전’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뒷사람은 위와 관련된 내용인만큼 원광전을 개작한 향인 김척명이 된다(A-②). 다음 ‘신라이전’은 『신라수이전』일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일연의 이 언급은 그가 고쳐지은 대상이 원광과 비허만이 아니라, 『신라수이전』을 개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⁹⁾ 전자로 보면 『수이전』의 改撰者로서 김척명이 새로 추가 되며, 犬城의 사실을 전하는 비허의 전기가 새로 증보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된다. 반면 후자로 보면 김척명이 『고본수이전』을 바탕으로 원광과 비허의 개인전기를 새로 지은 것으로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건곤은 김척명이 改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광법사전」과 「비허전」 등으로 미루어 승려와 관계된 일부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면서, 그가 『신라수이전』을 改作했다거나 異本을 저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경계하였다.¹⁰⁾ 소인호도 위 사료에 대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언급

8) 한편 견성의 이야기는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에는 없다. 비허의 전기에 들어 있다고 한 셈인데, 그것이 독립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부속된 것이었는지는 확인은 물론 추정이 불가능하다.

9) 서수생, 1956·1958, 「동국문종 최고운의 문학」, 『어문학』 1·2 ; 소재영, 고 소설발달사,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22쪽 참조.

은 '新羅異傳'의 내용 중 일부를 고쳤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그의 개작물이 『수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유통하였는지는 미지수이므로, 이에 대한 단정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필자 역시 후자로 보고자 한다. 전자로 보기에는 현재 逸文을 전하는 내용들 가운데 개작된 사실이 추가로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고본수이전』 내용이 인용되었고, 그 양이 적지 않음을 찾을 수 있다. 또 조선시대 여러 책에 열람 인용된 『신라수이전』은 대체로 박인량이 지은 『수이전』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새로 增補된 사실을 찾을 수는 있어도 원광의 전기 처럼 改作된 것을 찾기 어렵다.¹²⁾

따라서 『수이전』 전체가 아닌 원광의 전기만 고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제 이를 알기 위해 김척명이 개찬한 「원광법사전」의 검토가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 알아보려고 한다.¹³⁾

-
- 10) 金乾坤, 1988,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정신문화연구』 34, 276쪽.
 11) 소인호, 1998, 『殊異傳』의 저자와 문헌 성격에 관한 반성적 고찰, 『古小說研究』 3; 1998, 『韓國傳奇文學研究』, 國學資料院, 77-82쪽.
 12) 이에 대해서는 곽승훈, 2011, 수이전의 찬술본과 전승연구, 『진단학보』 104, 48-55쪽 참조.
 13) 최연식은 원광의 전기로 『고본수이전』과 그것을 고쳐지은 『개작수이전』이 있는데, 전자는 『삼국유사』에 후자는 거기에 보양과 관련된 행적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다. 또 『삼국유사』에서 『해동고승전』이 후대에 고쳐진 『개작수이전』을 따랐다고 하였으므로(B② 참조), 『해동고승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박인량의 『수이전』이 곧 『개작수이전』이 된다고 하였다(최연식, 2007, 고려시대 승전의 서술 양상 검토, 『한국사상사학』 28, 172-173쪽). 하지만 이는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 실린 원광의 전기는 물론 『고본수이전』과 박인량의 『수이전』을 정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나온 착오이다(곽승훈, 위의 논문 참조).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본 글의 검토를 통하여 자연 입증되므로 독자들은 잘 살피기 바란다.

III. 김척명의 원광·비허전 내용과 찬술 의도

1. 『고본수이전』 改撰과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해동고승전』 원광전의 서술 형태를 살펴보면, 각훈은 원광과 관련된 전기 내용을 모두 혼합한 뒤, 원광의 생애에 맞추어 차례대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전거를 밝혀 놓지 않았지만, 이는 오늘날 전하고 있는 『續高僧傳』 원광전과 『三國史記』 貴山傳을 비롯한 원광 관련기사와 비교를 하면 뚜렷하게 대조된다.¹⁴⁾ 따라서 이들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 내용이 남는다.¹⁵⁾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삼국유사』에 실린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과 대조하면 그것이 어떻게 改撰되고 加減되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그것을 표로 대비하여 이해를 돕고자 제시한 것이다.

<표 1> 『고본수이전』 개찬과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전거	古本殊異傳載圓光法師傳(■삼국유사■)	김척명 원광전 (海東高僧傳■원광전)
출생	法師俗姓薛氏 王京人也	釋圓光 俗姓薛氏 新羅王京人
삼기산 수행과 신의 보호	初爲僧學佛法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 後四年 有一比丘 來所居不遠 別作蘭若居二年 爲人強猛 好修呪術 法師夜獨坐誦經 忽有神聲呼其名 善哉善哉 汝之修行 凡修者雖衆 如法者稀有 今見隣有比丘 徑修呪術 而無所得 喧聲惱他靜念 住處礙 每有去來 幾發惡心 法師爲我 語告而使移遷 若久住者 恐我忽作罪業 明日法師 往而告曰 吾於昨夜 有聽神言 比丘可移別處 不然應有餘殃 比丘對曰 至行者爲魔所眩 法師何憂 狐鬼之言乎 其夜神又來曰 向我告事 比丘有何答乎 法師恐神瞋怒而對曰 終未了說 若強語者 何敢不聽 神曰 吾已具聞 法師何須補說 但可默然 見我所爲 遂辭而去 夜中有聲如雷震 明日視之 山頽填比丘所在 蘭若 神亦來曰 師見如何 法師對曰 見甚驚懼	厭居情鬧 三十歸隱三岐山 影不出洞 有一比丘 來止近地 作蘭若修道 師夜坐誦念 有神呼曰 善哉 凡修行者雖衆 無出法師右者 今彼比丘 徑修呪術 但惱汝淨念 碍我行路 而無所得 每當經歷 幾發惡心 請師誘令移去 若不從久住 當有患矣 明旦師往 告彼僧曰 可移居逃害 不然將有不 利 對曰 至行魔之所妨 何憂妖鬼言乎 是夕其 神來訊 彼答 師恐其怒也 謬曰未委耳 何敢不 聽 神曰吾已俱知其情 且可默住而見之 至夜 聲動如雷 黎明往視之 有山頽于蘭若壓焉

14) 張輝玉, 1991, 『海東高僧傳연구』, 民族社, 30-34쪽.

15) 원광과 관련된 다른 전기 자료는 더 이상 파악되지 않아 충분하다.

<p>신의 유학 권유</p>	<p>神曰 我歲幾於三千年 神術最壯 此是小事 何足爲驚 但復將來之事 無所不知 天下之事 無所不達 今思法師 唯居此處 雖有自利之行 而無利他之功 現在不揚高名 未來不取勝果 盍採佛法於中國 導群迷於東海 對曰 學道中國 是本所願 海陸迢阻 不能自通而已 神詳誘 歸中國所行之計</p>	<p>神來證曰 吾生幾千年 威變最壯 此何足怪 因諭曰 今師雖有自利 而闕利他 何不入中朝得法 波及後徒 師曰 學道於中華 固所願也 海陸迢阻 不能自達 於是神祥誘 西遊之事</p>
<p>유학</p>	<p>法師依其言歸中國 留十一年 博通三藏 兼學儒術 * 求法 修學 내용 없음</p>	<p>乃以眞平王十二年春三月 遂入陳遊歷講肆(* ▶ 國사기 ▶ 기사로 비교 불가) * 구법 수학 ▶ 高승전 ▶ 기사 비교불가</p>
<p>사은과 운문사 창건</p>	<p>* 해룡조우사실 없음 法師欲謝神 至前往三岐山寺 夜中神亦來 呼其名曰 海陸途間 往還如何 對曰 蒙神鴻恩 平安到訖 * 운문사 창건 약속 없음</p>	<p>俄見海中異人出拜請曰 願師爲我 册寺常講眞詮 令弟子得勝報也 師領之 遂到三岐山舊居 午夜彼神來問 往返如何 謝曰 賴爾恩護 凡百適願 神曰 吾固不離扶擁 且師與海龍結册寺約 其龍今亦偕來 師問之曰 何處爲可 神曰 于彼雲門山 當有群鵲啄地 卽其處也 詰朝師與神龍偕歸 果見其地 卽岬地 有石塔存焉 便册伽藍 額曰雲門而住之</p>
<p>신의 수계와 모습</p>	<p>神曰 吾亦授戒於神 仍結生生 相濟之約 又請曰 神之眞容 可得見耶 神曰 法師若欲見我形 平且可望 東天之際 法師明日望之 有大臂貫雲 接於天際 其夜神亦來曰 法師見我臂耶 對曰 見已 甚奇絕異 因此俗號臂長山 神曰 雖有此身 不免無常之害 故吾無月日 捨身其嶺 法師來送 長逝之魂 待約日往看 有一老狐黑如漆 但吸吸無息 俄然而死</p>	<p>神又不捨冥衛 一日神報曰 吾大期不久 願受菩薩戒 爲長住之資 師乃授訖 因結世世 相度之誓 又謂曰 神之形 可得見乎 日師可遲 明望東方 有大臂貫雲接天 神曰 師見予臂乎 雖有此神 未免無常 當於某日 死於某地 請來訣別 師趁期往見 一禿黑狸 吸吸而斃 卽其神也</p>
<p>귀국 후 활동</p>	<p>法師始自中國來 本朝君臣 敬重爲師 常講大乘經典 此時 高麗 百濟常侵邊鄙 王甚患之 欲請兵於隋 請法師作乞兵表 皇帝見以三十萬兵親征高麗 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 享年八十四 入寂 葬明活城西</p>	<p>▶ 高승전 ▶ ▶ 國사기 ▶ 내용 수록. (* 비교 불가)</p>

<표 1>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金陟明이 지은 「원광법사전」 내용이 『고본수이전』 원광전에 실린 내용을 대체로 요약 정리한 것임을 아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이를 잘 살펴보면 일방적인 요약이 아닌 것 같다. 『고본수이전』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김척명이 삭제한 부분이며, 『해동고승전』 원광전에서 진하게 나타낸 부분은 그가 추가한 부분이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김척명에 의해 축약 정리된 것이다. 이제 이를 대조하면서 그가 「원광법사전」을 지으면

서 무엇을 위해 『고본수이전』을 고쳤는가 알아본다.

첫째로 원광법사가 30세에 三岐山에 은거하여 수행을 하면서 신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이웃에 呪術을 행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신이 와서 원광법사의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떠날 것을 권고케 한다. 그럼에도 권고를 듣지 않자 신은 비구를 제거한다. 그리고 『고본수이전』에서 비구에 대해 ‘爲人強猛’이라 하였는데, 김척명은 이를 삭제하였다. 또 신이 비구를 제거한 뒤 소감을 물었을 때, 법사는 ‘見甚驚懼’라 답하였는데, 김척명은 이를 삭제하였다.

둘째로, 신은 원광법사에게 중국으로의 유학을 권유하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때 신인은 자신의 신통력이 ‘但復將來之事 無所不知 天下之事 無所不達’으로서, 원광법사의 능력과 미래를 알기에 유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김척명은 삭제했다.

셋째로, 그 결과 원광법사는 중국으로 유학가서 11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다.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에도 간략하게나마 들어있었지만, 『해동고승전』에서는 『속고승전』과 『삼국사기』 기사를 인용하여 비교할 수 없다.

넷째로, 중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원광법사는 삼기산에 가서 신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부분에서 김척명은 ‘凡百適願’이라 하여 원광법사가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더하였다. 하지만, 神 역시 ‘吾固不離扶擁’이라 하여 원광법사를 항시 보호한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더욱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에서는 원광법사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바다에서 海龍을 만나 사찰의 창건을 약속한다. 이 때 해룡은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주고 講經해주기를 원광법사에게 부탁한다. 그리하여 원광은 해룡과 함께 와서 신에게 절터를 찾아주길 부탁하고, 신은 운문산 앞의 鵲啄地를 가르쳐준다. 이에 원광은 그곳에 절을 짓고 운문사라 이름 한다. 이로써 김척명은 운문사의 창건자를 원광으로 밝혀놓게 된다.

그런데 이 내용 즉 작갑·운문의 일은 일연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고본수이전』과 『속고승전』에는 없는 것으로, 향간의 설로 운문하여[以街巷之說潤文] 추가된 내용이다(A②). 따라서 일연의 관점에서 볼 때, 『고본수이전』을 바탕으로

한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은 올바른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격렬하게 비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A③).

다섯째로, 『고본수이전』에서는 신이 원광법사에게 授戒를 청하여 받고, 죽은 뒤를 부탁한다. 이 부분에서 김척명이 弧를 狸로 바꾸어 좀 달리 표현하였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변함이 없다. 김척명은 신이 원광법사에게 수계를 청하는 내용을 '吾大期不久 願受菩薩戒 爲長往之資'라고 추가하여 『고본수이전』 원광전 보다 간곡하게 표현했다. 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원광법사의 요청에 응하는데, 거대한 체구의 신은 산위에 뻗친 자신의 팔뚝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산 이름을 '臂長山'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김척명은 이를 삭제하였다.

여섯째로, 원광법사가 귀국한 뒤 신라사회에서 벌인 영향에 대해서다. 이 부분은 『해동고승전』 원광전에서 『속고승전』 원광전과 『삼국사기』 귀산전의 내용을 수록하여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내용과 비교할 수 없다.

다음은 일언이 잘못 들어갔다고 지적한 보양의 사적가운데, 원광법사가 용녀를 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야기다. 이 역시 『고본수이전』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향간의 설로 潤문하여[以街巷之說 潤文] 추가된 내용이다.

김척명 「원광법사전」 (■해 동고승전 ■원광전)	
降雨	西海龍女 常隨聽講 適有大旱 師曰汝幸雨境內 對曰上帝不許 我若謾雨 必獲罪於天 無所禱也 師曰 吾力能免矣 俄而南山朝隲 崇朝而雨 時天雷震 卽欲罰之 龍告急 師匿龍於講床下 講經 天使來告曰 予受上帝命師爲逋逃者主萃 不得成命奈何 師指庭中梨木曰 彼變爲此樹 汝當擊之 遂震梨而去 龍乃出禮謝 以其木代已受罰 引手撫之 其樹卽蘇

어느 해 청도지역에 가뭄이 들자, 법사가 龍女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여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한다. 이에 上帝의 명을 받은 天使가 와서 용녀를 내어 놓으라고 청한다. 법사는 뜰 앞에 있는 梨木을 용녀가 변한 것이라 한다. 이윽고 천사가 벼락을 쳐서 이목을 罰주고 올라가니, 용녀가 나와 梨木을 손으로 어루만져 다시 살려 낸다.

이상에서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것

이 일연이 지적한 것처럼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을 바탕으로 김척명이 새로 지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김척명은 『고본수이전』 문장을 四六駢儷體로 간결하게 다듬어 놓았다. 또한 김척명은 원광법사의 獨自의 능력을 부각하여 놓았다. 대체로 神人의 능력을 삭제하는 한편, 신인이 授戒를 요청하는 내용은 간절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고본수이전』의 위 내용 외에, 김척명은 복을 빌어달라는 해룡의 요청을 받아 들여 운문사를 창건한 사실, 龍女를 시켜 비를 내리게 하여 청도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원광법사의 보살사상과 그것을 막아내는 신통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미루어 생각해보면,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새로 찬술한 의도는 우선 운문사의 창건자가 원광법사임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또한 그 창건은 해룡의 개인적 발원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용녀를 시켜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원광법사의 신통력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는 운문사의 위상도 함께 고양하려는 의도가 들은 것이다.

2. 김척명의 「비허전」

김척명은 「원광법사전」을 지은 것 외에도 犬城의 사실을 담은 비허의 전기를 지었다(B③). 그런데 이것은 일연의 지적대로 원광의 사적이 아니다. 따라서 『해동고승전』 비허전에 들어 있었을 것인데, 이는 전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일연이 보양이복조의 서술에 인용한 『군중고적비보기』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할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계 되므로, 여기서는 기본 취지만 언급한다.

고려 태조가 推火郡(지금의 밀양)에 이르러 청도로 나아가는 도중에 犬城의 완고한 저항에 부딪친다. 이에 태조가 봉성사의 毗虛師에게 가르침을 구하는데, 그 결과 견성을 함락시킨 뒤, 감사의 포상을 내린다. 또 절 이름은 二聖의 眞影을 봉안한 까닭에 奉聖寺라 이름지었는데, 이름을 바꾼 것인데, 賜額한 것

인지는 불분명하다.¹⁶⁾

아마도 이같은 취지를 담은 「毗盧傳」을 김척명이 지은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二聖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태조와 비허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¹⁷⁾ 이 경우 봉성사는 眞殿寺院이 된다. 김척명은 바로 그 점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저자 김척명에 대해서는 그의 생존 시기나 출신 지역 등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 저술 대상이 청도 운문사와 밀양 봉성사 두 곳 모두에 걸쳐 있다. 또 청도군은 고려 초부터 밀양의 屬郡이었는데, 1109년 監務가 두어져 비로소 독립하기에 이른다.¹⁸⁾ 이 점에서 두 지역과 관련된 전기를 찬술한 것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할 듯싶다. 이 점은 V장에서 다시 상세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IV. 『군중고적비보기』의 보양전 내용과 찬술의도

앞서 II장에서 살폈듯이 『고본수이전』 원광전에 離日과 雲門의 사실은 없다. 그것은 원광법사의 사적이 아니라 보양선사의 사적이기 때문이다(A②). 그래서 일연은 그것을 증명하고자 보양이목조를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바로 보양선사가 운문사를 創建한 緣起를 실어놓았다.¹⁹⁾

16) 봉성사지는 지금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있는 탐골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奉聖寺'의 글자가 새겨진 瓦當이 발견되었다. 李雲成, 1979, '추화봉성사지에 대하여', 『고고미술』 상, 한국미술사학회, 574쪽 참조.

17) 이재호 역주, 앞의 책, 212쪽.

18) 『高麗史』 卷57, 地理志 2, 清道郡조. "睿宗四年置監務"

19) 이 같은 보양이목조의 편성에 대해, 이재범은 운문사의 창건시조가 원광이 아닌 보양선사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걸음 나아가 운문사 창건의 공헌도가 보양보다는 용과 그의 아들인 이목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이재범, 2012,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3, 경주시 신라문화선

일연은 먼저 신라 말 보양선사가 운문사를 창건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청도군 관청에 전하는 두 통의 공문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天福 8년(태조 26년, 943) 정월에 작성된 것으로 운문산 선원 長生標가 남쪽의 아니점 동쪽의 가서현에 있었으며, 寶壤和尚이 典主人으로 나와 있다. 다른 하나는 開運 3년(定宗 원년, 946)의 공문으로 운문산 선원 장생표탑이 열한 곳으로, 아니점, 嘉西峴 묘현 서북매현 북저족문 등에 있었다고 적고 있다.²⁰⁾

이렇게 보양선사가 고려 초에 실제로 운문사에 住錫한 사실을 고증한 뒤, 일연은 正豐 6년(1161) 『郡中古籍裨補記』에 실린 寶壤傳 내용을 『삼국유사』에 수록하였다.²¹⁾ 이제 이를 살펴서 일연이 말한 작감 이목 운문 견성의 일을 알아본다. 다음은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을 앞서 살핀 김척명의 「원광법사전」·「비허전」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표 2> 「원광법사전」과 『군중고적비보기』

전거	김척명 「원광법사전」 (■ 僧 동고승전 ■ 원광전)	■ 郡 중고적비보기 ■ ((僧 국유사 ■ 보양이목))
신라	* 관련 사실 없음	羅代已來 當郡寺院 鵲岬已下中小寺院 三韓亂

양회, 11-13쪽). 하지만, 이는 최병현이 지적하듯이 일연이 보양의 행적을 밝히려는 목적보다 원광의 사적과 혼동된 내용을 시정하려 한 것으로서, 독립된 조목이라기보다는 원광서학조에 부속되는 항목으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최병현, 2012, 삼국유사 의해편과 신라불교사, 같은 책, 15-16쪽).

20) 謹按清道郡司籍 載天福八年癸酉(卯)-太祖卽位第二十六年也- 正月日 清道郡界里審使順英·大乃末水文等柱貼公文 雲門山禪院長生 南阿尼岾 東嘉西峴-云云- 同藪三剛典主人寶壤和尚 院主玄會長老 貞座玄兩上座 直歲信元禪師-右公文清道郡都田帳 傳准- 又開運三年丙辰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一道 長生十一 阿尼岾·嘉西峴·畝峴 西北買峴 北猪足門等(『三國遺事』 4, 義解 5, 寶壤梨木).

21) 『군중고적비보기』는 청도군에서 편찬된 邑誌 가운데 '裨補'항목으로 여겨지지만, 고려시대 읍지가 남아 전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명칭 그대로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필자도 그에 따른다. 또 이 경우 소항목은 '雲門寺'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글에서의 비교 대상이 원광의 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寶壤傳'으로 사용한다.

시대		亡間 大鵠岬 小鵠岬 所寶岬 天門岬 嘉西岬等 五岬皆亡壞 五岬柱合在大鵠岬
해룡 조우 와 작감 운문	俄見海中異人出拜請曰 願師爲我劫寺常講眞詮 令弟子得勝報也 師頷之 且師與海龍結劫寺約 其龍今亦偕來 師問之曰 何處爲可 神曰 于彼雲門小當有群鵠啄地 卽其處也 詰朝師與神龍偕歸 果見其地 卽輻地有石塔存焉 便劫伽藍 額曰雲門而住之	祖師知識-上文云寶壞- 大國傳法來還 次西海中 龍邀入宮中念經 施金羅袈裟一領 兼施一子璃目 爲侍奉而追之 囑曰 于時 三國擾動 未有歸依佛法之君主 若與吾子歸本國 鵠岬創寺而居 可以避賊 抑亦不數年內 必有護法賢君 出定三國矣 言訖相別而來還 及至茲洞 忽有老僧 自稱圓光 抱印櫃而出 授之而沒 於是 壞師將興廢寺 而登北嶺望之 庭有五層黃塔 下來尋之則無跡 再陟望之 有群鵠啄地 乃思海龍鵠岬之言 尋掘之 果有遺塼無數 聚而蘊崇之 塔成而無遺塼 知是前代伽藍墟也 畢創寺而住焉 因名鵠岬寺 未幾 太祖統一三國 聞師至此 創院而居 乃合五岬田 束五百結納寺 以清泰四年丁酉 賜額曰雲門禪寺 以奉袈裟之靈蔭
이목 강우	西海龍女 常隨聽講 適有大旱 師曰汝幸雨境內 對曰 上帝不許 我若謾雨 必獲罪於天 無所禱也 師曰 吾力能免矣 俄而南山朝隴 崇朝而雨 時天雷震 卽欲罰之 龍告急 師匿龍於講床下講經 天使來告曰 予受上帝命師爲逋逃者主宰 不得成命奈何 師指庭中梨木曰 彼變爲此樹 汝當擊之 遂震梨而去 龍乃出禮謝 以其木代已受罰 引手撫之 其樹卽蘇	璃日常在寺側小潭 陰隲 忽一年亢旱 田蔬焦槁 壤劫 一境告足 天帝將誅不識 璃日告急於師 師藏於床下 俄有天使到庭 請出璃日 師指庭前梨木 乃震之而上天 梨木萎摧 龍撫之卽蘇
	김척명 비허전 (嘿 동고승전 ■ 비허전?)	■ 軍 중고적비보기 ■ ■ (■ 삼 국유사 ■ ■보양이목)
전성	* 알 수 없음.	初師入唐廻 先止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 至清道境 山賊嘯聚于犬城 驕傲不格 太祖至于山下 問師以易制之述 師答曰 夫犬之爲物 司夜而不司晝 守前而忘其後 宜以晝擊其北 祖從之 果敗降 太祖嘉乃神謀 歲給近縣租五十碩 以供香火 是以寺安二聖眞容 因名奉聖寺 後遷至鵠岬 而大創終焉

표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여기에서는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이 많은데, 이는 운문사의 창건연기를 삼국통일과 연관시킨 사실들이 추가된 때문이다. 반면 이목이 비를 내리게 한 부분은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이 적은데, 이는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내용을 축약한 정리한 때문일 것이다.

첫째, 작감사가 신라시대에 창건되어 다섯 개의 사찰로 존속하였지만, 후삼

국시대의 난리통에 소실된 사실을 밝혀 놓았다. 그런데 이는 운문사의 창건자를 원광으로 내세운 김척명의 견해를 비판하는 의미를 삭감하는 것이어서 다소 의아스럽다. 보양선사가 증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해룡의 권유를 따른 작갑사의 창건연기를 밝혀 놓았다. 보양선사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서해에서 海龍을 만난다. 용은 선사를 용궁으로 초대하여 경전을 엮볼게 하고, 금라가사 한 벌을 보시한다. 더불어 용은 아들 離目으로 하여금 선사를 모시고 따르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삼국이 요란하여 어지러운 것은 佛法에 귀의하는 군주가 없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 작갑에 절을 짓게 되면, 난리를 피할 수 있고, 또 護法賢君이 나타나 삼국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선사가 귀국하여 작갑 골짜기에 이르니, 자칭 圓光이라는 노스님이 나와 印櫃를 주고 사라졌다.

이에 보양선사가 北嶺에 올라 바라보니, 5층 황색탑이 있었으나, 내려가면 보이지 않았다. 다시 고개에 올라 바라보니, 한 무리의 까치가 모이를 쪼고 있었다. 그제서야 해룡이 말한 鵲岬의 뜻을 이해하고 그곳을 파헤쳤다. 그러자 수많은 벽돌이 나왔는데, 그것을 모아 탑을 이룸에 남는 벽돌이 없었다. 이에 전대의 절터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작갑사라 이름짓고, 주석하였다.

얼마 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였는데, 선사가 절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五岬의 田 五百結을 바쳤다. 또 태조는 청태 4년(937) 賜額하여 雲門禪寺라 하여 가사의 靈蔭을 받들게 하였다.

셋째, 보양선사가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한 내용이다. 海龍의 아들 離目は 절 옆에 있던 작은 연못에 살면서 은밀히 선사를 도왔다. 청도 지역에 가뭄이 드니 선사가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한다. 천제가 이목을 벌주려 하니, 이목이 선사께 위급함을 알렸다. 선사는 이목을 침상 아래에 숨기고, 천사에게는 이목이 梨木 즉 배나무로 변했다고 말한다. 천사가 배나무에게 벼락을 내리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에 배나무가 시들어졌는데, 용이 어루만져주자 다시 살아났다. 이 같은 내용은 김척명의 「원광법사전」 내용보다는 많이 축약된 것이지만, 취지는 모두 반영되었다. 이는 『군중고적비보기』가 김척명의 글을 토대로

저술한 것임을 잘 알려 준다.

넷째, 보양선사가 봉성사에 머무르면서 지혜로 태조의 삼국 통일을 도운 내용이다. 보양선사가 唐에서 돌아 온 뒤, 처음에는 추화(밀양)의 봉성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 때 태조가 동쪽으로 정벌을 나왔다가, 청도에 이르러 犬城을 지키는 적군의 저항에 직면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태조는 보양선사에게 秘策을 물었고, 선사는 개는 그 앞만을 지키고 뒤를 잇는다고 가르쳐 준다. 결국 태조는 배후를 기습하여 항복받는다. 태조는 기뻐하여 가까운 縣의 租 50석을 매년 지급해서 佛事に 充당토록 한다. 그래서 절에서는 보양선사와 태조의 眞影을 모시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절 이름도 봉성사로 하였다.

이상에서 『군중고적비보기』에 찬술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신라 말의 혼란은 불법을 따르지 않는 군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선사가 작감에 절을 짓고 기다리며 난리를 피하고 있으면, 곧 護法賢君이 나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여 護國佛教가 강조되었다.²²⁾ 또한 보양선사는 지역에 가뭄이 들자 離目を 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데, 天使의 처벌을 免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더욱 보양선사는 犬城 공략의 지혜를 내어 태조의 삼국통일을 도왔는데, 이 역시 선사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한 것이었다. 護法賢君 태조의 활동도 강조되었다. 海龍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 봉성사의 佛事を 도운 것이나, 작감사의 창건 소식을 듣고 租를 充당케 한 것, 그리고 雲門寺로 賜額을 한 것 등이 그렇다.

이로서 보면, 『군중고적비보기』를 찬술한 의도는 우선 작감사가 보양선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운문사는 태조가 사액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작감사의 창건연기는 보양선사가 작감에 절을 짓고 기다리면 護法賢君이 나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海龍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는 결국 군주의 護法活動이 호국으로 이어지는 護國佛教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더욱 『군중

22) 해룡이 보양선사에게 금라가사를 내어주고 작감에 절을 지으면,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이는 가섭이 세존의 교시에 따라 계족산에서 말법시대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린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이 깊다.

고적비보기』라는 점에서 볼 때, 운문사가 일찍부터 禪補寺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위상을 뚜렷이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중고적비보기』의 저자는 뚜렷하지 않은데, 서두의 다음 기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C-① 正豐 6년(1161) 9월 『군중고적비보기』에 따르면, ② 淸道郡 前副戶長 禦侮副尉 李則禎의 집에 있는 古人의 소식과 諺傳의 記載에 ③ 致仕한 上戶長 金亮辛, 치사한 호장 旻育, 호장 同正 尹應, 전 其人 珍奇 등과 당시 상호장 用成 등의 말이 적혀 있는데, ④ 당시 太守는 李思老였다.²³⁾ ⑤ 戶長 亮辛의 나이는 89세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70이상이었고, 用成만이 나이 60 이상이였다.²⁴⁾

먼저 C-①에서 『군중고적비보기』의 작성 연대가 1161년임이 확인된다. 다음 C-②의 古人 소식과 諺傳 기재는 이척정의 집에 소장된 장서와 청도군 발행의 공문서 등으로 추측된다. C-③은 두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을 통해 파악된 인명들인데, ‘致仕’ 혹은 ‘前’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청도군의 전직 향리이고, ‘時’자가 붙은 상호장 용성만이 현직자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들의 ‘言語’가 실려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古人 소식과 諺傳’을 전하는 주체임을 알려 준다. 이라고 보면 이들은 1161년 이전의 과거 인물로 여겨지는데, C-⑤에 나와 있는 그들의 나이 기록을 통해 볼 때 當時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현직 상호장 용성이 60이 넘었고, 나머지는 7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직의 상호장 용성을 중심으로 모두가 당대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C-④에는

23) 이에 대해 이재호는 “그 때 태수 이사호와 당시 상호장 김양신은 나이 여든아홉이었고”로 해석하였다(이재호 옮김, 1997, 『삼국유사』 2, 서울출판사, 208쪽). 하지만 89세의 태수는 이미 致仕를 훌쩍 넘은 나이이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해석한다. 이에 있어서는 김홍삼선생의 교시를 받았다.

24) 正豐六年辛巳九月 郡中古籍禪補記准 淸道郡前副戶長禦侮副尉李則禎戶在古人消息及諺傳記載 致仕上戶長金亮辛 致仕戶長旻育 戶長同正尹應 前其人珍奇等與 時上戶長用成等言語 時太守李思老 戶長亮辛年八十九 餘輩皆七十已上 用成年六十已上(『三國遺事』 卷4, 義解 5, 寶壤梨木조).

1161년 군지의 편찬 당시 태수가 이사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이렇게 보아오면 청도군의 전·현직 호장들로 여겨지는 이들은 바로 『군중고적비보기』의 편찬을 주도한 사람들로서 그 저자로 이해된다. 태수 이사호와 상호장 용성은 현직에 있으면서 『군중고적비보기』의 편찬을 행정적으로 주도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전직 호장들은 古人消息과 諺傳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도 『군중고적비보기』의 편찬에 있어 실제 내용을 구성 편찬하는 일을 주도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편찬자들은 찬술을 위해 참고 인용한 옛 문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여기에 담은 내용이 諺傳에 記載된 것이라기보다 古人의 소식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다른 아닌 이전부터 운문사와 관련된 傳承으로 지역에 전해오던 口傳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것에는 보양이 離目에게 비를 내리게 한 이야기와 태조에게 犬城 공략의 지혜를 낸 사실이 해당될 것이다. 전자는 이미 청도와 밀양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무기설화였고,²⁵⁾ 후자는 밀양의 봉성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는데, 어느덧 주인공이 원광과 비허에서 보양으로 바뀌어진 것 같다. 그런 뒤에 지역에서 채록하여 『군중고적비보기』에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상세히 밝힌 것에서도 유추해낼 수 있다. 상호장 양신의 경우 89세이고 다른 이들은 70세 이상이었다. 이는 그만큼 오래전부터 청도 지역에 전해 내려 온 이야기를 『군중고적비보기』에 담았음을 알려 준다. 즉 서술 내용의 신빙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나이를 밝혀 놓은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諺傳 기재는 신라시대 작갑사의 존재와 소실, 보양선사가 해룡의 권유를 받아 작갑사를 창건한 사실이 해당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로는 고려 초보다는 1100년대 운문사가 발전하던 시기에 운문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보아오면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은 사실상 諺傳 기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지어낸

25) 姜晶植, 1989, 寶壤梨木 說話 研究, 『白鹿語文』 6, 제주대 국어교육과, 86-95쪽. 이외 황경숙, 1994,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밀양 호박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참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보아오면 『군중고적비보기』는 편찬자들이 비보사찰로서의 운문사를 강조하기 위해, 보양선사를 창건자로 내세운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여기에는 운문사의 입장도 자연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그에 앞서 선종 승려 圓應國師學一의 下山所로서 확장 발전된 것에서 십분 생각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핀다.

V.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이상에서 살펴온 것처럼 운문사의 창건자와 창건연기가 시기를 달리하며 지어졌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고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조명해본다.

金陟明은 「圓光法師傳」을 통하여 청도 운문사의 창건자가 원광법사이며, 그 연기는 海龍이 복을 빌어달라는 개인적 발원이 주된 이유였다. 그는 또 「毗虛傳」을 통해 밀양의 奉聖寺가 태조의 眞影을 모시는 진전사원이 된 것은, 비허사가 견성을 공략하는 지혜를 내어 태조의 삼국통일을 도운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1161년 청도군에서 편찬한 『군중고적비보기』에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鵲岬에 절을 짓고 기다리면 護法賢君이 나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해룡의 권고를 받아들인 보양선사가 창건하였다. 그리고 절 이름을 鵲岬寺라 했는데, 雲門寺는 태조가 賜額한 이름이었다. 또 보양선사가 처음 奉聖寺에 있을 때, 犬城 공략의 지혜를 내어 태조의 삼국통일을 도왔다. 이로서 운문사는 청도군의 비보사찰이 되었다.

앞서 살폈듯이, 김척명이 저술한 내용은 『고본수이전』 원광전을 바탕으로 改撰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일연의 비판처럼 보양의 사적을 원광에게 붙여 놓아 잘못된 것이었다(A②). 그렇다면 과연 원광과 운문사는 일연의 생각처럼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인가?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歸戒滅讎의 법으로써 우매한 증생을 깨우쳐주어야 했을 것이다. 때문에 원광은 자기가 있던 가서잡에 占察寶를 두어 常規로 삼았다. 이때 시주하던 여승이 점찰보에 발을 바쳤는데, 지금의 東平郡 발 1백결이 바로 이것이며, 옛날 대장이 아직 남아 있다.²⁶⁾

위 내용에서 원광법사가 증생을 깨우치기 위한 점찰보를 가서잡에서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가서잡은 앞서 살핀 것처럼 운문사 장생의 하나였다.²⁷⁾ 또 IV장에서 살폈듯이, 작갑사는 뒤에 발전하여 신라 말에는 다섯 개의 사찰로 늘어나 五岬寺로도 불렸다. 그러므로 가서잡 역시 대작갑사에 부속된 작은 암자였음을 알겠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원광이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준 장소로 加悉寺가 나오는데, 이는 嘉栖岬의 음역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⁸⁾ 따라서 원광법사가 일찍이 다섯 갑사 가운데 하나인 여기서도 住錫한 사실을 알기에 어렵지 않다.²⁹⁾ 그러므로 운문사의 전신인 작갑사와의 인연은 응당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고 보면 원광의 주석처가 궁금해진다.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에 따르면, 원광은 출가후 삼기산에서 은거하였다가, 신의 권유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뒤, 다시 그 산으로 돌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법사의 부도는 삼기산 금곡사에 있었으며, 지금의 안강 서남쪽이자 명활산성 서쪽에 있다.³⁰⁾ 더욱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곳에서 운문사 동쪽의 가서잡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이다. 운문에서 북쪽을 향하여 가다가 건천과(경주 서쪽) 현곡을 거쳐 안

26) 『三國遺事』卷4, 義解 5, 圓光西學조.

27) 주 20) 참조.

28) 時圓光法師入隋遊學 還居加悉寺(『삼국사기』 권45, 열전5, 貴山傳). 嘉瑟岬 - 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岬 俗云尸 故或云古尸寺 猶言岬寺也 今雲門寺東九千步許 有加西岬 或云嘉瑟岬 岬之北洞有寺基 是也-(『三國遺事』卷4, 義解 5, 圓光西學).

29) 김윤근, 1983,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淸道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117-120쪽.

30) 정영호, 1973, 원광법사와 삼기산 금곡사, 『사총』 17·18합, 200쪽.

강으로 나아가면 원광법사가 머물던 금곡사지에 이른다. 또 안강에서 남쪽으로 향하거나, 현곡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곧바로 경주가 나온다. 안강의 금곡사에서 운문의 가서갑까지는 대략 40~50km 정도로 헤아려지는데, 운문사 아래의 雲門湖를 거치면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말하자면 청도군의 운문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삼기산의 원광법사가 오고가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니 운문사와 관련된 원광의 사적이 나오는 것이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광법사가 운문사와 인연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새로 지으면서 운문사의 창건자로 내세운 것에는 나름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옳을 듯하다.

이런 점에서 『군중고적비보기』의 찬술 내용이 다시 궁금해진다. 寶壤傳 역시 몇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운문사의 창건은 해룡의 권유를 받아들인 보양이 작갑사를 짓고 住錫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귀국 후 처음에는 보양이 밀양의 奉聖寺에 주석한 것으로 나와 모순이 된다. 더욱 이는 『군중고적비보기』에 본래 다섯 개소의 작갑사가 있었는데, 난리통에 모두 소실되어 대작갑사에 목재를 모아 두었다는 내용과도 相衝된다. 난리는 다름 아닌 889년 농민봉기 이후부터 후삼국까지의 소요기이다. 따라서 작갑사는 그 이전에 이미 세워졌을 뿐더러, 소실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해룡의 권유를 받은 보양선사가 작갑사를 새로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 것 역시 역사적 사실과 符稱하지 않는다. 보양선사가 중건을 한 것으로 설명했어야 옳기 때문이다. 이 역시 작지 않은 모순이다.³¹⁾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순서로 보면, 犬城의 공략 사실이 가장 앞서야 한다. 그럼에도 제일 뒤에 서술되었는데, 이는 『군중고적비보기』 내용이 보양선사에 의한 운문사 창건과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창건연기에 초점을 두면서 뒤로 밀려났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운문사의 창건연기가 꾸며진 것임을 傍證케 했다. 앞에서는 보양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운문사 창건에 나선 것으로 되어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보양선사가 운문사

31) 김윤곤, 앞의 논문, 122쪽.

를 창건하고 賜額寺刹으로서 비보사찰임을 내세우고자 편찬자들이 犬城의 사실을 가져다 맞춘 것임을 알려준다.

차라리, 원광법사가 있었던 加悉寺와 연계하여 鶴岬寺를 처음 창건하여 발전되었지만, 후삼국 난리통에 사원이 소실되었고, 그것을 보양선사가 태조를 도운 공로로 나라의 후원을 받아 중건하고, 다시 태조로부터 운문사로 사액을 받았다고 하였으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보다 합리적인 서술이 될뿐더러, 是非非의 여지 또한 없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³²⁾ 이는 일연이 밝혔듯 원광이 설치한 점찰보가 가서갑(가슬사)에 있었던 점이나, 『군중고적비보기』에도 원광이라는 노스님이 보양선사에게 印櫃를 주고 갔다고 한 점에서 미루어 심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미루어 원광과 연계된 사실을 『군중고적비보기』에서 언급하면서도, 원광을 배제하려고 한 『군중고적비보기』에 실은 저자의 의도가 매우 의아스럽다. 이는 저자들이 운문사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적의 검토를 통하여 역사 속 흐름에 의한 전통보다는 저술 당시 선종 산문의 독자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이 문제는 김척명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위에서 필자가 제시했듯이 加悉寺와 연계하여 작갑사로부터 출발하여, 보양선사에 의해 운문사로 賜額받는 등에 이르는 합리적인 서술을 심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또한 보양선사에 의한 重建 사실을 적극 배제한 것은 저술 당시 선종 산문과의 연관사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이 운문사의 창건을 두고 두 저술이 알려주는 연기는 그 차이는 물론 이요, 저자가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저술대상으로서의 운문사가 같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운문사 또한 저술의 주체도 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주체는 현재시점에서 운문사를 경영하는 세력들이 되지만, 반면 미래의 경영을

32) 조선시대 편찬된 운문사 사적에 “雲門寺者 唐時圓光 晉朝寶壤 宋庭圓應三祖師 繼以廸建之道場也”로 나와 있다.

바라는 또 다른 세력들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군중고적비보기』를 찬술할 당시의 운문사에 대해 알아보면, 사원 운영의 주체가 선종 승려들이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운문사는 인종대 국사를 지낸 圓應國師 學一의 下山所가 되는데, 그는 선종 승려였다. 더욱 그의 비문에 들어 있는 다음 내용은 흥미를 더한다.

대각국사가 입승유학하여 화엄종지와 겸하여 천태교관을 수학하고, 철종의 원우 원년(1086) 병인에 귀국 天台智者를 존승하여 별도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이 때 총림납자 가운데 천태종으로 更屬한 자가 10 중에 6·7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본 선사는 祖道가 凋落하여짐을 슬퍼하며, 介然한 결심으로 쓸쓸히 홀로서서 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생명을 바쳐 호종하였다. 대각국사가 사람을 보내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끝내 그의 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³³⁾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한 이후 회유된 다수의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옮겨졌지만, 원응국사 학일은 전향하지 않고 선종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사찰 역시 다른 종파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³⁴⁾ 당시 학일은 瓊巖寺에 있었는데, 이후 운문사를 하산소로 정하여 1129년부터 1144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이 때 운문사가 많은 발전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운문사는 선종사원으로서 전통은 이후 계속되었다. 또 1161년 작성된 『군중고적비보기』에는 운문사의 창건자로 보양선사가 내세워졌고, 비보사찰로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원광법사의 사적은 제외시켰다. 이로써

33) □□國師 西游於宋 傳華嚴義 兼學天台教觀 以哲宗元祐元年丙寅回 尊崇智者 別立宗家 于時 藜林衲子 傾屬台宗者十六七 師哀祖道凋落 介然孤立 以身任之 大覺使人頻諭 而卒不受命(李智冠 역주, 1996, 『靑道 雲門寺 圓應國師碑文』,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4, 가산문고, 277쪽).

34) 이와 관련하여 이웃 지역 밀양의 영원사의 사례가 주목되는데, 고려시대 영원사는 조계종과 천태종의 승려들이 번갈아 바뀐 것이 대략 7회나 되고 있다(韓基汶, 2001, 『고려시기 밀양 瑩原寺의 소속변화와 그 배경』,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學會, 691-708쪽).

보면 운문사는 학일의 하산 이후 선종산문으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어 1230년 최씨무인정권은 선교사원의 연혁을 조사보고토록 하는데, 아마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을 계승한 것 같다.³⁵⁾ 여기에 1277년 일연 선사가 주지로서 운문사에 머무른다.³⁶⁾ 이로서 운문사는 늦어도 학일 이후 선종사찰로서의 전통이 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고 보면 1100년대 이후 1200년대에 이르기까지 운문사는 선종산문으로 존재해왔다고 보아 그리 무리가 없을 것 같다.³⁷⁾

이를 미루어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지었을 당시 운문사에 대해 알아본다. 일연의 고증에 의하면, 운문사는 고려 초 보양선사가 창건하여 937년 태조에 의해 운문사로 賜額되었다. 또 일연이 직접 살핀 두 공문 즉, 943년 946년 청도군청에서 작성한 장생포탑 공문에 운문사는 雲門山禪院으로 뚜렷이 나와 있다.³⁸⁾ 따라서 운문사는 고려 초부터 선종 승려가 주석한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150여 년 동안 운문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상적 성격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35) 庚寅年(1230)에 작성된 晉陽府貼에 보면, 5도 안찰사가 각도의 선교사원의 연혁을 조사한 사실을 기록하여 놓았다(又庚寅年 晉陽府貼 五道按察使各道禪敎寺院始創年月形止 審檢成籍時 差使員東京掌書記李僖: 『삼국유사』 권4, 의해5, 보양이목조). 그런데 이를 인용한 일연이 그 내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1161년 작성의 『군중고적비보기』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공문만 보고, 실제로 보고된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36) 이지관 역주, 1997, 군위 운문사 보각국존 정조탑비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5, 242쪽.

37) 한편, 운문사는 1190년대에 들어와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 1193년 운문의 金沙彌가 난을 일으킨 뒤, 동경(경주)의 孝心과 합세하여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金光植, 1989, 雲門寺와 金沙彌亂: 高麗中期 寺院勢力의 一例, 『한국학보』 54, 일지사; 2001, 『고려 무인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70-91쪽). 하지만 이로 인하여 운문사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38) 주 20) 참조.

앞에서 살폈듯이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은 『군중고적비보기』가 지어진 1161년 이전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김척명이 지은 「비허전」 내용을 정확히 단언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밀양의 봉성사가 진전사원 혹은 비보사찰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허가 태조의 전성 공략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문사를 선원으로 하는 고려 초의 기록보다는 뒤서야 하며, 1100년대보다는 앞서야 한다. 이렇고 보면, 김척명이 「원광법사전」과 「비허전」을 지은 시기는 대체로 11세기로 여겨진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운문사의 주지로 교종 승려가 파견되어 사찰의 사상적 성격이 일시 바뀌었거나 아니면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짐작할만한 단서는 거의 없다.

청도군은 본래 밀양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예종 4년(1109) 감무가 설치되면서 그것을 벗어난다.³⁹⁾ 그에 따라 청도군에서는 자연 비보사찰로서 운문사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진전사원을 밀양의 봉성사에 두는 것보다는 사액사원인 운문사와 그 취지가 부합되므로 이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운문사의 창건연기를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대두된 듯하다. 그래서 보양을 창건자로 내세우는 『군중고적비보기』를 짓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찬술한 시기는 결국 성종대 이후 예종 이전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학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청도보다는 밀양 지역 출신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살펴오면, 운문사의 창건연기가 시기에 따라 달라진 연유를 대략 정리해볼 수 있겠다. 먼저 고려 초 보양선사가 운문사를 중건한 뒤, 11세기에 들어와 교종계에서 운문사를 취했거나 취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뒤이어 선종에서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여기에 예종대 監務의 설치로 인하여 밀양군으로부터 독립한 청도군에서도 지역의 獨自性을 내세우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던 것 같다. 더욱 圓應國師 學一의 下山所로 지정되면서, 선종 사찰로서의 위상이 다시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39) 『高麗史』 卷57, 地理志 2, 清道郡조. “睿宗四年置監務”

는 운문사를 청도군의 비보사찰로서 내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호장들이 청도군의 공문서는 물론 개인이 집에 보관된 서적 등을 열람하고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결과 1161년 『청도군지』를 만들면서 비보사찰로서의 운문사를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⁴⁰⁾ 물론 그것에는 선종사찰로서의 운문사 입장 또한 자연 반영된 것이었다.

이처럼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화는 고려불교사의 흐름과 관련이 깊었다. 즉, 종파의 성쇠와 지역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밀양 영원사의 경우 고려시대만해도 일곱 차례나 소속 종파의 성격이 자주 바뀐 사례가 확인된다.⁴¹⁾ 따라서 그리 무리는 아닐 듯싶다. 그렇다고 그런 사정이 고려 사회에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이 같은 두 저술의 차이는 이후에 각훈과 일연에 의해 계승돼 이어졌다. 먼저 운문사 창건을 원광으로 내세운 김척명의 글은 화엄종 승려 각훈에 의해 『해동고승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나말여초 보양선사에 의해 증진된 사실과 운문사로 賜額한 사실은 제외되었다. 이는 각훈이 『군중고적비보기』를 살피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으나, 1230년 진양부첩 공문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버리고 취하지 않은 것이 된다.⁴²⁾ 따라서 이는 각훈 역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운문사의 창건을 원광법사로 보았을 뿐더러, 증진자로서 보양을 내세우려 하는 뜻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즉 화엄종 승려로서의 입장

40) 고려시대 지방통치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많았는데, 또 그로 인한 폐단이 생겨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監務의 파견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 독립한 군현들이 새로이 성황신을 추대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은 대체로 고려조의 개국공신들이어서 흥미롭다. 즉 지역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청도군 역시 1109년 감무가 설치되어 밀양으로부터 독립된 뒤, 지역의 독자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비보사찰로서 운문사를 주목한 것 같다. 한편 지역의 성황산신앙에 대해서는 변동명, 2013,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산신앙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참조.

41) 한기문, 앞의 논문, 695-703쪽.

42) 주 35) 참조.

이 강하게 견지되고 있었다.

반면 1277년 운문사의 주지가 된 일연은 사찰과 관련된 史籍을 열람하면서, 그 창건자가 보양선사로서, 또 운문사는 裨補寺刹로서 업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해동고승전』 원광전과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을 살피면서 운문사의 창건자와 창건 연기가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연은 『삼국유사』 원광서학조에서 『고본수이전』을 인용하여 오류를 밝혀내고, 다시 보양이목조를 편성하여 고증하였다.⁴³⁾ 그 결과 각훈과 김척명을 크게 비판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일연 역시 운문사의 전신인 작감사가 신라시대부터 이미 있어왔던 사실, 즉 이전에 교종사찰로 존속한 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일연 역시 선종 승려의 입장에서 운문사 창건연기를 정리하였던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두 사람 역시 선대의 두 글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나타나는 모순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종파의 입장을 저술에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신라 혹은 고려 불교사 서술이 저자의 입장(혹은 종파)에 따라 달리 전개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승이나 기록 속에 나타나는 차이를 유심히 살펴야 하겠다.

나아가 경인년(1230) 진양부첩의 선교사원 실패과악을 다시 주목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선교사원의 연혁이 이전과 달리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원의 연혁에 대한 찬술을 자극하게 되었고, 또 그것은 고려시대 편찬된 寺志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이런 점에서 이는 고려 후기 史學史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43) 주 19) 참조.

44) 許興植, 1983, 寺志의 刊行과 展望, 『韓國學研究의 現況과 展望』, 亞細亞文化社: 1986,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참조.

VI. 맺음말

고려시대 雲門寺의 창건자와 창건연기는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면서 저술되고 또 계승되었다.

먼저 고려 전기 金陟明은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을 고쳐, 새롭게 「圓光法師傳」을 지었다. 이에 따르면, 원광법사가 운문사를 창건한 연기는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도중, 海龍이 자신을 위해 절을 짓고 복을 빌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때문이었다. 또한 절 이름을 운문사라 하였다. 청도 지역에 가뭄이 들자 용녀를 시켜 비를 내리게 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김척명이 「원광법사전」을 찬술한 의도는 우선 원광법사가 운문사를 창건하였음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또 용녀를 시켜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원광법사의神通력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는 운문사의 위상도 함께 고양하려는 의도가 들은 것이었다.

반면 1161년 청도군에서 편찬한 『郡中古籍裨補記』에 실린 내용에서는 寶壤禪師가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도중 만난 海龍의 권고를 받아 들어 창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룡은 신라 말의 혼란은 佛法을 따르지 않는 군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寶壤禪師가 鵲岬에 절을 짓고 기다리며 난리를 피하고 있으면, 곧 護法賢君이 나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선사는 그 말을 좇아 절을 창건하고 鵲岬寺라 이름하였는데, 뒤에 고려 太祖가 운문사로 賜額하였다. 또 선사는 지역에 가뭄이 들자 해룡의 아들 離目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였다. 더욱 보양은 犬城 공략의 지혜를 내어 태조의 삼국통일을 도왔는데, 이 역시 선사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중고적비보기』는 청도군의 호장들이 주도해서 편찬한 것으로, 裨補記라는 점에서 운문사가 일찍부터 지역의 비보사찰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위상을 뚜렷이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더욱 작감에 절을 지으면 호법현군이 나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창건연기는 군주의 護法活動이 호국으로 이어지는 호국불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

이처럼 고려시대 운문사의 창건연기는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면서 저술되었다. 그 연유로 仁宗代 國師를 지낸 學一의 비문 내용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일이 天台宗으로 귀의하라는 大覺國師의 권유를 끝내 거부하고 선종 승려로서의 기개를 굽히지 않은 사실이 강조되었다. 이후 학일은 운문사로 하산하여 1129년부터 1144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이런 때문인지 얼마 뒤 보양선사를 운문사의 창건자로 내세운 『군중고적비보기』가 지어지고 있다. 이는 운문사의 창건자가 교종 승려인 원광이라는 이전의 주장에 대응하여 선종 승려인 보양선사로 바꾼 것이다.

1200년대에 들어와, 김척명의 저술 내용은 『해동고승전』 원광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원광법사가 운문사의 창건자임을 재천명한다. 여기에 1277년 일연이 운문사의 주지로 부임하여 운문사 관련 사적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르면, 『해동고승전』 원광전이 김척명의 저술 내용을 답습한 것이고, 또 그는 『고본수이전』 원광전 내용에 보양선사의 사적을 가져다 운문사의 창건연기를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 이에 일연은 청도군의 공문서를 통해 나말 여초 보양선사가 운문사에 주석한 사실을 고증하여 창건자가 보양선사임을 밝혀낸다. 그리고 『군중고적비보기』 내용을 인용 보양선사가 운문사의 창건자임을 다시 재천명한다. 더욱 김척명과 각훈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데, 여기에는 일연이 선종승려라는 입장도 함께 반영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운문사의 창건자와 창건 연기가 시기에 따라 바뀌고 계승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교사의 흐름은 물론 종파간의 경쟁에서 나온 듯하다.

논문투고 : 2014.11.19, 논문심사완료 : 2014.12.04, 게재확정 : 2014.12.13

참고문헌

- 姜晶植, 1989, 寶壤梨木 說話 研究, 『白鹿語文』 6, 제주대 국어교육과
- 곽승훈, 2004, 통일신라시대 寺志 편찬, 『韓國史學史學報』 9; 2006, 『신라고문헌연구』, 한국사학.
- 곽승훈, 2011, 수이전의 찬술본과 전승연구,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 金乾坤, 1988,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정신문화연구』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相鉉, 1984,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藍史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 金炯佑, 1984, 「해동고승전에 대한 재검토」,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太學社.
- 金光植, 1989, 雲門寺와 金沙彌亂: 高麗中期 寺院勢力의 一例, 『한국학보』 54, 일지사; 2001, 『고려 무인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 金潤坤, 1982, 「麗代의 寺院田과 그 耕作農民-雲門寺와 通度寺를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 김윤근, 1983,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淸道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위의 책.
- 裴象鉉, 1997, 「高麗時代 雲門寺의 寺院田 經營」,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학회; 1998, 『고려후기사원전연구』, 국학자료원.
- 변동명, 2013,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신신앙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 서수생, 1956·1958, 「동국문중 최고운의 문학」, 『어문학』 1·2
- 소인호, 1998, 「『殊異傳』의 저자와 문헌 성격에 관한 반성적 고찰」, 『古小說研究』 3; 1998, 『韓國傳奇文學研究』, 國學資料院.
- 소인호, 2001, 『고소설사의 전개와 서사문학』, 아세아문화사.
- 소재영, 1991, 고소설발달사,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 李劍國·崔桓, 2000, 『新羅殊異傳 考論』, 중문출판사.
- 李雲成, 1979, 추화봉성사지에 대하여, 『고고미술』 상, 한국미술사학회.
- 이재범, 2012,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3,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 이재호 옮김, 1997, 『삼국유사』 2, 솔출판사.
- 李智冠 역주, 1996, 「靑道 雲門寺 圓應國師碑文」,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4, 가산문고.

- 張輝玉, 1991, 『海東高僧傳연구』, 民族社, 1991.
- 정영호, 1973, 원광법사와 삼기산 금곡사, 『사총』 17·18합.
- 최병현, 2012, 「삼국유사 의해편과 신라불교사」,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3,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 최연식, 2007, 고려시대 승전의 서술 양상 검토,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 韓基汶, 2001, 「고려시기 밀양 瑩原寺의 소속변화와 그 배경」,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學會.
- 許興植, 1983, 寺志의 刊行과 展望, 『韓國學研究의 現況과 展望』, 亞細亞文化社: 1986,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 황경수, 1994,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밀양 호박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Abstract

Historical Meaning of Difference in the Caused of Foundation of Unmun Temple in the Koryo Period

Kwaak, Seung-Hoon

According to *Wonkwang Bopsa Chon*(「圓光法師傳」) written by Kim Chok-myong(金陟明), Unmun Temple(雲門寺) was founded by Buddhist monk Wonkwang Bopsa(圓光法師) at the request of a King Dragon(海龍, which lives of Yellow sea) that the monk build a temple and pray for him. The temple was named Unmun Temple by the monk. Hak Il(學一), a national priest during King Injong(仁宗)'s reign, went into and stayed at Unmun Temple. He refused Uicheon(義天)'s recommendation to convert to Tiantai Buddhism and remained faithful to Zen Buddhism to the end of his life. According to *Gunjung Gojeok Bibogi*(「郡中古籍禪補記」) published by local gentry in Cheongdogun(淸道郡) in 1161, Unmun Temple was build by Boyang Sonsa(寶壤禪師) at the recommendation of a King Dragon that a temple be built in Chakgap(鵲岬) for the emergence of a wise king who protects Buddhism and unifies Later Three Kingdoms. Boyang Sonsa named the Chakgap Temple(鵲岬寺). The name Unmun Temple was granted by King Taejo(Wang kon). This indicates that the founder of Unmun Temple is non-Zen Buddhism monk Wonkwang Bopsa but Zen Buddhism monk Boyang

Sonsa.

Ilyon(一然), the Buddhist monk appointed as the head priest of Unmun Temple in 1277, read books and documents on Unmun Temple and found ou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book by Kim Chok-myong. According to Ilyon, Kim's book was based on "Wonkwang chon" in *Gobon Sui Chon*(『古本殊異傳』), which did not say Wonkwang established Unmun Temple. Furthermore, official documents written by Cheongdogun in the early of Koryo period confirmed that Boyang Sonsa served as the head priest of Unmun Temple. Kim Chok-myong's book, therefore, was not in line with the historical fact. Ilyon also criticized Gakhun(覺訓) for accepting Kim's work as true without investigation. Ilyon's position as Zen monk is considered to contributed to this, too.

In this respect, the difference in the founder and caused of foundation for Unmun Temple seems to have been originated by competition among denominations within Buddhism.

keywords : Unmun Temple(雲門寺), Kim Chok-myong(金陟明), Boyang Sonsa(寶壤禪師), Gunjung Gojeok Bibogi (『郡中古籍裨補記』), Gak Hun(覺訓), Gobon Sui Chon(『古本殊異傳』), Samgukyusa(『三國遺事』), Wonkwang Bopsa(圓光法師), Hak Il(學一), 『Haedong Kosung Chon(海東高僧傳)』